PUP THE VOLUME

양곤의 POWER TIME

ON AIR

안녕하세요, '양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엄DJ, 하DJ가 시작합니다.

이곳은 양곤입니다.(나긋하게)

아, 노래 하나 듣고 갈게요. 정일영이 부릅니다.

기도.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에

방송편성표 참고해주세요^.*(찡긋) 그럼 이따 봐요~

ON AIR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중간평가	2 휴일	3 휴일
4 휴일	5 하우스키핑 미얀마어수업	6 마요골라바	7 흘랑따아	8 세피따	9 양곤Y 널써리	10 어린이 크리스마스
11 휴일	12 하우스키핑 미얀마어수업	13 싱가포르 잉글리시 클래스	14 싱가포르 잉글리시 클래스	15 싱가포르 잉글리시 클래스	16 싱가포르 잉글리시 클래스 크리스마스 행사	17 휴일
18 휴일	19 하우스키핑 미얀마어수업	20 마요골라바	21 흘랑따아	22 세피따	23 크리스마스 이벤트	24 민민또 여동생 집 방문
25 우띠이 집 방문	26 하우스키핑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27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28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29 카렌족 신년 행사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30 크리스마스 새해 연휴	31 양곤노 어린이 가정방문

ON AIR

프로그램 순서

(1) 널서리

(2) 하우스키핑
& 미안마어수업

(3) English class

(4) 양곤의 크리스마스

(5) 양곤의 새해

(6) 개인 에세이

ON AIR

널서리

ON AIR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하DJ가 진행하는 첫번째 코너!!!널서리입니다. 지난 한달 동안 널서리에 대해서 사연을 받아왔는데요. 수많은 사연 가운데 뽑힌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ON AIR

안녕하세요. 미얀마 양곤에서 국제자원활동을 하고있는 청년입니다. 널서리에 대해서 사연을 보냅니다. 근데 사연 상품은 무엇을 주나요ㅎㅎㅎ?? 헤헷. 맛있는 음식 보내주세요!!!!까불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번 12월에는 신문지를 색칠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한 그림 위에 찢어붙이고, 신문지를 색칠해서 모자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서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트리도 만들었답니다. 이번 달에는 널서리에 할당 된 시간이 현저히 적어서 아쉬웠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행복했답니다.

ON AIR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미얀마 양곤팀 12월 널서리는 이렇게 했군요.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제가 더 마음이 좋네요. 널서리에 관해서 몇가지 사연이 더 들어왔는데요. 읽어볼게요. 앗! 방금 저 멀리 해외에서 SMS사연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SMS사연 읽고 널서리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ON AIR

안녕하세요 하DJ~제게 요즘 고민이 있어요..요즘 말하다가 문득문득 한국어가 생각이 안나요..영어나 크메르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섞어 쓸 때도 있고, 이거 뭐 이도저도 아닌 3개국어를 쓰게 됐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ON AIR

ㅋㅋㅋㅋㅋㅋㅋㅋ공감되네요. 저도 그런답니다. 전 저번 태국에서 식당 종업원 분께 코쿤캅(태국어로 고맙습니다)이라 해야하는데 제주띤바레(미얀마어로 고맙습니다)라고 했어요. 한국가서도 불쑥 불쑥 미얀마어가 튀어나올 것만 같아요. 그럼 참 재밌겠네요. 그래도 우리 청취자 분! 한국어가 생각이 안나도 여기 하DJ, 하. 도. 현 이라는 이름 석자는 기억 해주실거죠?? 멀리 타지에서 애청해주시고 사연보내주신 이 분께 고마움을 표하며 선물드릴게요. 그럼 노래 하나 듣고 바로 널서리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크러쉬와 태연이 함께 부른 곡이죠. 잊어버리지마.

ON AIR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네달이 넘어가네요. 사실 일주일에 세번, 그것도 몇번씩 일이 생겼어 못간 날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만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처음엔 사실 많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안맞는 옷을 입은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이들과의 거리가 좁혀져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많이 가까워져서 이제 조금 친하게 지내게 되니 곧 헤어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개인적인 문제로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서 자괴감이 듭니다. 널써리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활동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덩달아 저까지 기분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ON AIR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제 품에 안기던 그날을..

그 사람은 항상 저를 외면했죠. 제가 매달리고 관심을 구걸해도 매몰차게 저를 대했어요. 그렇게 3달 쯤 지나서였나....그 사람은 저에게 안겼어요. 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한답니다. 그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침 저도 반복되는 내침에 지치던 찰나였거든요. 하지만 그 분이 저에게 안기는 순간, 세상을 모두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차갑고 매몰차게 대해서 안타까웠던 저의 서운한 마음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사랑이란 이런걸까요? 아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 분 의 이름은 '포콰지' 라는 3.5살 남자아이입니다. 16년 9월, 그를 처음 봤을 때부터 저는 그에게 제 마음을 뺏겼죠. 얼마나 귀엽던지 제 동생으로 삼고 싶을 정도였어요. 포콰지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그는 빡빡머리에다가 아주 귀여운 볼따구를 가졌어요. 정말 볼따구가 너무 귀여워서 매일매일 뽀뽀해주고 싶다니까요?? 전 오래전 부터 남자동생을 갖고싶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어마마마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마마마께선 ' 안그래도 지금 아들3명 키우는데 아들을 또 키우라는거냐' 라고 하셨죠. 참고로 저희집은 아빠, 엄마, 형, 저 이렇게 4명이랍니다. 여하튼 전 포콰지의 마음을 얻었다 해서 방심하지 않을거에요. 이제 한국을 가면 못보겠지만 마음 한 켠으로는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리워할 것 같아요.

ON AIR

네~사연 잘 읽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저희 방송이 슬프게도 오늘이 마지막이랍니다ㅠㅠㅠㅠ. 엄DJ와 하DJ가 곧 한국으로 돌아가거든요. 드디어 집을 갑니다흐흐흐흥흐흐흐흐ㅡ흥흐흐흐흥. 아이고, 아쉬워하는 청취자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근데 실은 너무나 기쁩니다ㅎㅎㅎ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얼른 보고싶네요. 앞으론 부모님말씀 잘 듣고 착실히 살려고해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 잊지않고 응원해주실거죠?? 그럼 노래 하나 듣고, 광고듣고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소울이 부릅니다. HOME

ON AIR

미얀마어 수업
&하우스키핑

ON AIR

ON AIR

하DJ가 진행하는 두번째 코너!!! 미얀마어수업/하우스키핑입니다.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미얀마어 수업과 하우스키핑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해 사연을 받았습니다. 몇가지 사연 소개해볼게요~

ON AIR

하우스키핑은 주로 구관을 많이 갔었습니다.디보나 울리에 아저씨와 많이 청소를 했었어요. 항상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고, 미얀마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그 친절하던 디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해가 되는 1월 1일에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두번 다시 두보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친절함을 평생토록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미얀마어 수업은, 매번 에띠 선생님과 띠띠 선생님이 친절히 가르쳐주셔서 항상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데, 배우는 학생인 제가 게을러서 항상 죄송하네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 물어보면, 항상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해요.

ON AIR

1. 미얀마어 수업: 미얀마어 수업을 띠띠선생님과 에띠선생님께서 가르쳐주세요. 그런데 두 선생님들께서 엄청엄청 성심성의껏 가르쳐 주셔서 미얀마어를 소홀히 하는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네요...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어요.

2. 하우스키핑: 구관을 갈 때마다 같이 청소했던 '디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구관을 갈 때마다 디보생각이 나네요.

ON AIR

네. 사연 잘 읽었습니다. 이로써 제가 맡은 코너는 끝이 났네요. 홀가분합니다. 지난 4달동안 방송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희로애락은 늘 저와 함께 했어요. 그래도 청취자 여러분이 있기에 저는 항상 기쁘고 행복했답니다. 여러분! 붕정만리(鵬程萬里)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사람의 앞날이 넓고 발전의 여지가 많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청취자 여러분 앞날이 창창하길 바라며, 마지막 곡 띄우고 이만 물러갈게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승철이 부릅니다. Never ending story.

PUP THE VOLUME

703CoolFM

양파의

볼륨을 높여요

English Class

그 첫번째 이야기

"싱가포르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Hazi"

양곤YMCA가 싱가포르 담당자분들과 힘을 합쳐 YMCA 직원들의 영어 능력 강화를 위한 워크샵을 4일 정도 진행했어요. 통칭 `Einglish class´라고 불리었습니다. 수업은 네 명의 선생님을 두 명씩 두개의 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회화´반과 `문법´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저는 회화 반에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Hazi 라는 선생님이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엄청 활발한 성격의 그 선생님은 침울한 YMCA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신나게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노력하셨어요. 손님과의 여러가지 상황에서 어덯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실제 두명씩 짝지어서 상황극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셨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간이 짧아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Hazi 선생님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직업을 바꾸실 생각이라고 하셔서, 이제 미얀마 Einglish class에서는 보기 힘들거라고 애기를 하셨어요. 그래도 싱가포르에 가면 뵐 수 있으니까, 이별의 아쉬움은 접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English Class

그 두번째 이야기

"한명의 아이를 둔, 미모의 선생님 Cindy"

Einglish class 회화반의 두번째 선생님은 Cindy 입니다. 그녀는 유치원생 딸을 둔 선생님인데요, 한국의 한복을 좋아해서 딸에게 자주 입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Class 동안 아띠 한명이 감기에 걸렸었는데, 걱정이 되셨는지, 싱가포르에서 가져오신 약을 한가득 가져다 주시기도 했지요. 괜찮다고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약을 챙겨주셔서 감동이었습니다. Cindy 선생님은 코스튬을 모으는게 취미라고 하셨어요. 특히 딸이 입을 코스튬을요, 회화반 수업에서 서브 선생님으로서 Hazi 선생님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짚어 주셨어요, 상황극에서 손님에게 웃으면서 담화를 주고 받는 등의 섬세한 부분을 짚어 주셨어요.

싱가포르와 양곤Y랑은 꽤 오랜 인연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먀오끌라바나 힐랑따야에 페인트를 새로 바르고 예쁜 나무 그림 그려주고 가셨어요. 두 단체가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English

Class

양곤의 크리스마스

그 세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크리스마스 습격 사건"

크리스마스 연휴가 오기 일주일 전쯤, 양곤 YMCA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한밤'에 캐롤송을 불러주러 양곤 곳곳의 Y관계자들의 집을 찾아가서 여러가지 캐롤송을 불러주는 행사였어요. 5시쯤에 행사가 시작 되는데, 저는 차를 놓쳐서 7시쯤에 가게 되었어요. 양곤Y의 직원 대부분이 두대의 차로 나눠타고, 이동하면서 집들을 찾아가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캐롤송을 불러주는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일반 가정집부터 어린이집까지 다양하게 찾아가서 신나게 캐롤송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집들에서 과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주어서 행복했어요. 하지만 12시가 넘어가자 급격하게 체력이 저조해지기 시작해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골아 떨어져서 다른 친구들이 깨워 주기도 했지요. 그래도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을 처음 해 봐서 신기했어요.

양곤의 크리스마스

양곤의 특별한 새해

그 네번째 이야기

"카렌족 해피뉴이어 행사"

벌써 12월 29일이 되었다. 미얀마 양곤에서 2017년을 맞이 하기 이틀 전, 카렌족 해피 뉴이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우리 담당 코디이신 산드라 간사님은 카렌족이고, 양곤Y의 여러 STAFF 분들 중에서도 카렌족인 분들이 많아, 운 좋게도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5시쯤에 로비로 내려가, 비몽사몽하며 차를 타고 카렌족 해피뉴이어 행사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카렌족인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카렌족의 옷가지들이나 카렌족 전통 민속품 그리고 다양한 카렌족의 그림이나 사진등 작품들을 볼 수 있었어요. 카렌족의 영웅이라는 분들의 사진도 볼 수 있었지요. 분위기는 즐겁고 신나는 분위기였어요. 다들 새해를 맞이하여 기분 좋은 미소를 입에 걸고 있었습니다. 카렌족 행사 이후에 산드라 간사님의 형제분의 집에서 모힝가를 만들어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칸타와 함께 미얀마 민속촌에 놀러 갔었어요. 호수도 있고, 다양한 미얀마의 전통집 양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다양한 커플들도 볼 수 있었구요. 중앙에 탑같은 높은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꽤나 잊혀지지 않더군요.

2017 양곤의 새해

Bobby
Mianna
Raon Atti
16th
Khant Htet + Jun Young
Kalel Soe + Yu Jeet
Joung Min
2015.7.25
Raonatti 13th

양곤 민속촌

양곤의 특별한 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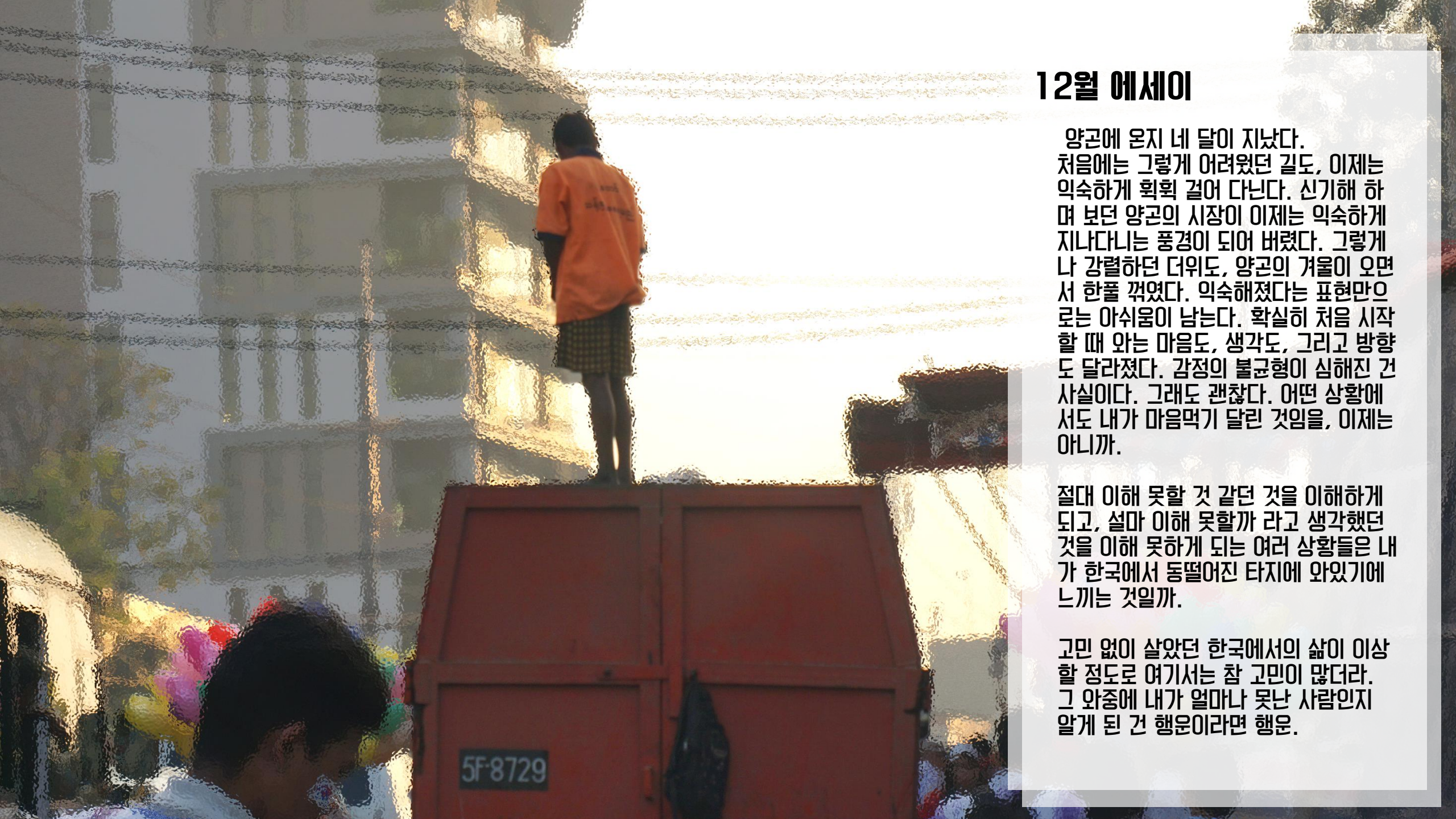
그 다섯번째 이야기

"카렌족 축제"

카렌족 행사는 미얀마 곳곳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에띠 선생님은 저희 아띠들에게 미얀마어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인데요, 에띠 선생님 역시, 카렌족 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연휴라 Y에서 빈둥거리던 저희를 카렌족 축제장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카렌족 축제장 역시 다양한 카렌족의 문화와 관련된 사진들이나 전통기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 축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대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카렌족 친구의 시원한 고음의 노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 활동할 때 만났었던 로에를 볼 수 있었는데, 성적우수자로 상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에띠 선생님에서 각종 먹거리를 사주었고, 에띠 선생님의 아들인 빅터 역시 만났습니다. 빅터는 저희에게 만난 기념이라며, 팔찌를 선물해주었는데요, 감사히 지금도 잘 쓰고있어요.

카렌족 밤 축제

개인
에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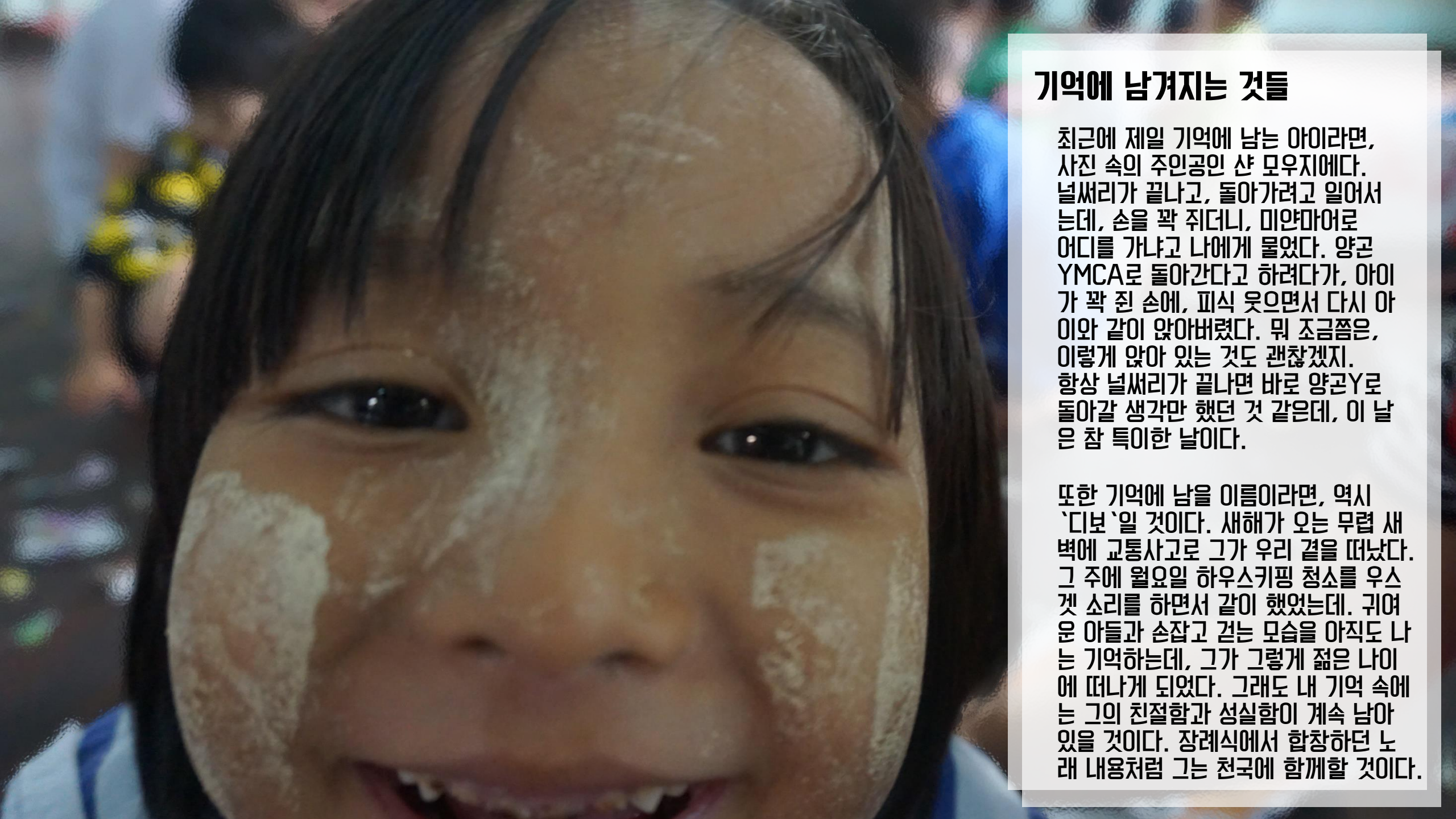


12월 에세이

양곤에 온지 네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웠던 길도, 이제는 익숙하게 휙휙 걸어 다닌다. 신기해 하며 보던 양곤의 시장이 이제는 익숙하게 지나다니는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렇게나 강렬하던 더위도, 양곤의 겨울이 오면서 한풀 꺾였다. 익숙해졌다는 표현만으로는 아쉬움이 남는다. 확실히 처음 시작할 때 와는 마음도, 생각도, 그리고 방향도 달라졌다. 감정의 불균형이 심해진 건 사실이다. 그래도 괜찮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마음먹기 달린 것임을, 이제는 아니까.

절대 이해 못할 것 같던 것을 이해하게 되고, 설마 이해 못할까 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해 못하게 되는 여러 상황들은 내가 한국에서 동떨어진 타지에 와있기에 느끼는 것일까.

고민 없이 살았던 한국에서의 삶이 이상할 정도로 여기서는 참 고민이 많더라. 그 와중에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알게 된 건 행운이라면 행운.



기억에 남겨지는 것들

최근에 제일 기억에 남는 아이라면, 사진 속의 주인공인 샨 모우지에다. 널써리가 끝나고,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손을 꽉 쥐더니, 미얀마어로 어디를 가냐고 나에게 물었다. 양곤 YMCA로 돌아간다고 하려다가, 아이가 꽉 쥔 손에, 피식 웃으면서 다시 아이와 같이 앉아버렸다. 뭐 조금쯤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괜찮겠지. 항상 널써리가 끝나면 바로 양곤Y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것 같은데, 이 날은 참 특이한 날이다.

또한 기억에 남을 이름이라면, 역시 `디보`일 것이다. 새해가 오는 무렵 새벽에 교통사고로 그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 주에 월요일 하우스키핑 청소를 우스겟 소리를 하면서 같이 했었는데. 귀여운 아들과 손잡고 걷는 모습을 아직도 나는 기억하는데, 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떠나게 되었다. 그래도 내 기억 속에는 그의 친절함과 성실함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장례식에서 합창하던 노래 내용처럼 그는 천국에 함께할 것이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

KBbank&YMCA Raonatti 16th

2017.01.10

by 하도현

한국나이 25살, 창창한 나이다. 20대는 젊고 아름답다. 화양연화(花樣年華) 인 나이다. 자고로 난 아름답고 행복한 나이이다. 허나 지금 몰골을 본다면... ㅎ ㅎ ㅎ. 여하튼 그렇다.

24살까지는 몰랐다. 근데 이제 슬슬 걱정된다. 앞으로 늙는게 걱정된다. 난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한없이 젊을 줄만 알았던 내가 주름살도 생기고, 아프면 잘 낫지도 않고, 회복능력도 예전보다 떨어지고, 축구할 때 달리기 느려져서 공 다 뺏기고, 그렇게 되는 것일까?? 얼른 더 나이 들기 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겠다.

새해가 되는 순간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아이고 난 25살이 됐다.

December Essay

송정민

두려움 없이 이 넓은 세상 살아갈 수 있길. 그런 사람이길.

와이파이를 쓰기 위해 카페를 갔던 적이 있었다. 한국에 가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답을 찾은 것 같아 기쁜 마음으로 Y에 돌아왔고, 유진이를 찾던 중 1층에서 즐겁게 Y분들과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반갑게 모든 Y분들과 유진이가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유진아!" 하고 부르며 다가갔을 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던 대답과 나를 살짝 보고 할 일을 하던 분들을 보며 갑자기 이 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 자리에서 뻘쭘하게 서성이다가 방으로 올라갔다.

정확히 그때부터였다. 내 마음이 우울해진 시작점이. 그 원인에 원인을 되짚어가던 중, 내 마음속에서의 두려움을 보았고, 내가 느꼈던 양심의 가책, 소외감, 질투심을 인정해야 했다. Y분들과 유진이를 도와 함께 일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여태까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왔던 왠지모를 어색한 느낌과 벽을 느꼈던 순간들이 생각이 났다. 나를 한 사람도 반겨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때의 분위기에 겁이 나기도 했다. 점점 귀국 날은 다가오고 나는 여기 미얀마 양곤에서 미미한 존재감인것 같은 기분이 들어 두려웠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와 상대를 비교했다. 지난 날들 동안, 나보다 다른 친구의 이름을 더 자주 부르며 Y친구들이 다가온 것 같았고, 나는 이만큼밖에 못 친해졌는데 이 친구는 저만큼이나 친해졌구나 하면서 질투심도 났다. 머리로는 사람마다 친해지는 속도는 다 다르고 조바심 낼 필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자꾸만 나와 상대를 비교하게 되었다.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던 걸까. 미얀마에서 5개월의 시간 동안 나의 흔적을 남길려는 욕심이 나를 힘들게 했다. 그렇게 점점 겁을 먹고 Y분들과 내가 한자리에 모여 있는 순간들을 피했고, 혼자서 나와 상대의 거리에 선을 그어버리고 내 안의 동굴로 숨어 들어갔다.

길었던 휴식기동안 힘들어하다가 다시 널서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밤톨 같은 머리의 아이들이 날 보고 웃을 때와 나의 품에서 새근새근 숨 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왔다. 그냥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너무나 좋아서 내 마음 그대로 눈짓과 몸짓 그리고 말로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표현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더 힘껏 안아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자꾸 겁을 먹고 나의 마음을 더 내주려 하지 않을 때,

그렇게 나의 마음을 저울질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주는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준다. 마음 편하게 나의 감정을, 나의 행복과 기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더불어 상대방을 미워하는 시간과 혼자 속앓이 하는 시간이 부질없다는 것도.

사실 아이들의 순수함 때문에 내가 다칠 일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재고 따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더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표현하기가 쉽다. 설령 그런 이유였을지라도, 내가 또 다시 스스로 겁을 먹고 상대와의 관계를 포기하려 할 때, 용기 있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두려우면 두렵다 좋으면 좋다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다가 갈 거다.

용기 내 볼 거다.

아직은 서툰 부분이 많지만, 그런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항상 지지해주는 가족, 친구들 그리고 옆에서 에세이 쓸 내용을 골똘히 생각하고 있는 유진이가 있으니까.

내가 만약 라온아띠를 지원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베트남에서 졸업장을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채 내 전공을 어떻게든 살려 취업하려고 노력하고 있겠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이다.

환상을 품고 처음 라온아띠에 도전했고, 5개월의 경험을 통해 폭풍 성장할 나를 기대했다. 환상은 깨졌고, 폭풍성장까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많은 점들이 변화했다. 좋은 쪽으로.

2년 동안 베트남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는 대로 생각했다. 가족들이 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을 알기에 항상 죄송함과 감사함과 부담감이 늘 따라다녔고, 다른 건 생각하지도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오면, 언어는 실력이 있으면 어디서든 잘 된다는 믿음으로 매순간 버텼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가 라온아띠 지원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나에 대해 고민해봤고, 나의 상태를 찬찬히 돌이켜 봤다. 기적적으로 라온아띠에 붙은 후에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 같다.

10월 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이 사라졌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면서 혼자 속앓이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싶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남들의 시선은 재쳐두고 내가 원하는 일, 내 가슴이 뛰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해보려고 한다. 일단 해보면 그 일이 나에게 가슴 뛰는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제시해줄지 쓰라린 교훈이 될지 알 수 있으니까. 실패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라온아띠는 나에게 선물인 것 같다. 하하. 자세히 말하면 라온아띠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는 너무 귀한 선물이다. 라온아띠를 지원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가 사랑스럽고 반짝반짝 하다고 말해주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 덕분에 지금의 내 모습이 정말 좋고 사랑스럽다. 나와 연결된 많은 인연들을 통해 받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준다. 이 소중한 인연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아이고 후련하다. 이제 귀국 보고회만 남은거구나.

남은 시간 동안에도 힘껏 사랑해야지. 아틴타!

1-1

지난 한 달은 어떻게 지냈었나 다이어리를 읽어보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정말 그랬다. 행복한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 순간들을 회상하면 그 때 공기의 온도, 습도, 바람냄새,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나와 함께 그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했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눈빛,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다. 내 삶도 이렇게 알록달록 예쁘게 물들 수 있었구나, 평생 이 기억들만 간직하며 살아도 충분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다.

소중한 경험들이 나를 채워갈수록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달라졌다. 4개월 전과 분명 같은 글을 읽는데도 단어들이 갖는 의미가 더 무겁고 깊게 느껴져서 마치 글자들이 더 굵고 진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길을 걷는데도 그 장소에서 보냈던 소중한 순간들이 촘촘히 겹쳐져서 마치 주위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나의 세상은 더 넓어졌고, 더 다채로워졌다.

1-2

그래서 타인의 세상, 그의 삶 또한 소중하게 바라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가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느꼈던 수많은 순간들과 기억들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을 테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온 세계란 얼마나 정교하고 또 거대한 것인지, 나는 감히 상상도 못할 거니까. 내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단정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각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만나 서로의 세상이 교차되어 같은 순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 만약 그 때 서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마음이 통하고, 함께 행복을 느꼈다면 그건 정말 경이롭다 해도 부족함이 없는 순간일 것이다. 지난 5개월 동안 그런 소중한 인연들이 내 곁에 찾아와주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다이어리를 읽어보니 내가 행복을 느꼈던 그 모든 순간마다 소중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좋다. 더욱 더 감사하다.

2

2017년 1월 3일, 꼬 디보의 장례식이 있었다. 12년을 양곤 YMCA에서 일한 그는, Y 모든 직원들의 친구였고, 가족이었다. 고작 4개월을 머물면서도 꼬 디보와 마 뜨위씨, 그리고 두 아이들과 정이 들어버린 나인데, Y 가족들은 그를 잃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난 상상할 수 조차 없다.

그럼에도 마 누누테는 장례식 내내 눈물이 나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내게 부채질을 해주시며 다독여주셨다. 꼬 디보를 완전히 보내고 나서야, 숨어서 외로이 참았던 눈물을 펑펑 흘리시던 마 뜨위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옆에 앉아 이제 6살인 톰보이의 손을 잡고 있을 수 밖에 없던 내게 '땡큐, 진'이라고 하시며 미소를 지어주셨다.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다스리기도 힘들 텐데 그렇게 나를 먼저 위로해주셨다.

그래서 나도 조금이나마 Y 가족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 싶었다. Y 가족들은 장례식 당일에도 Y로 돌아와 하우스 키핑을 하고 리셉션을 지켜야 했다. 심지어 그 다음 날에는 Y에서 열린 따냔 총장님의 동창회 준비로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들 옆에서 부족한 일손을 서툴게라도 돕는 것이었다. 난 정말, 그저 그것밖에 하지 못했다…. 그랬는데도 그들은 나를 항상 제일 먼저 챙겨주셨고, 내가 슬픔에 잠길 틈도 없게 내 곁에서 날 계속 지켜주셨다.

마 띤자미엣은 함께 장보러 가는 길에 맛있는 국수를 사주시고, 찌찌에는 일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눈이라도 붙이라고 무릎 베개를 해주며 등을 토닥토닥 쓸어주었다. 비지는 매끼니 내 밥을 먼저 챙겨줬고, 민민또는 내가 지쳐 보일 때마다 장난을 걸어주었다. 쉘라와 메뚜는 밤에 내가 무서워 할까 봐 같이 자자고 여자 방에 초대해주었고, 한국 드라마까지 보여주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렇게나 넘치도록 사랑을 주시는지. 내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여기 Y가족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울컥 차오른다. 정말… 이런 사람들을 내 평생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들과 헤어지는 순간이 두려울 정도이다.

여기 양곤 YMCA의 가족들을 참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

3-1

난 언제나 내가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들을 생각했다. 그래서 늘 내가 부끄러웠고, 당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

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된 하루 속에서도 아름다운 순간들을 찾아냈고, 내 하루 끝은 항상 행복할 수 있었다.

난 때때로 기분 좋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종종 기쁘게 만들 수 있었다.

난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었다. 뭐든지 배울 점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난 발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지금 내 모습 자체를 예쁘다고 생각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내 존재 자체가 충분히 사랑 받아 마땅하다고 표현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알게 되었다. 나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지금의 나를, 내 스스로가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

3-2

그래서, 이렇게나 날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에, 난 날 소중히 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가려는 노력은 이제 그만 두고 싶다. 내게 함부로 말하고, 내 진심을 들어주지 않는 이들에게 상처받는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모르겠다. 내가 상처받은 순간들에 사로잡혀 그 감정들에 갇혀서, 불필요한 외면과 섣부른 체념으로 관계 맺기를 포기한 것인지….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고 그 동안 노력해온 시간들이 부정될까 봐, 수도 없이 배운 '다름의 이해'와 '소통'에 있어서 결국 나는 실패자로 남을까 봐, 마음껏 미워하는 것조차 무섭다.

4-1

나는 계획을 세워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었다. 항상 가까운, 혹은 먼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불안함을 느꼈다. 10살 때는, 천국에 가면 영생을 얻는다는데 난 '무한'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엉엉 울기까지 했다. 또, 나의 계획은 언제나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하는 것'들 뿐이었다. 때때로 너무 타이트하게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자책했고, 내가 바랐던 내 미래의 모습대로 이뤄지지 않음에 화를 냈다. 언제나 미래를 그리던 나는 현재의 행복과 일상의 즐거움을 충분히 만끽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내게 마법을 걸었다. 한국에 돌아갈 날이 6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던 날, 나는 남은 날 동안 내가 언니랑 여기 미얀마에서 하고 싶은 일들, 가고 싶은 곳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포스트잇에 적어 벽면에 붙였다. 양곤 Y널서리 말괄량이 쉬마네 가정 방문하기, 기쁨 언니랑 만나서 이야기 나누기, 민민또 누나랑 우띠이 댁에 방문하기, 아침에 강변으로 산책가기, Y가족들이랑 연말 파티하기, 날 잡고 질릴 때까지 영화보기… 너무 많았다. 하루에 하나씩 해도 모자를 만큼 많았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했다. 또, 그 때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 그 시간을 보냈다. 우리의 오감을 총동원해서. 평소라면 지나쳤을 것들을 멈춰 서서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평소라면 굳이 하지 않았을 말들도 그냥 용기 내서 표현했다. 최대한 그 시간에 푹 젖어서 모든 것을 듬뿍 느껴보려고 했다. 그랬더니 정말 두 배, 세 배로 즐거웠다. 그 모든 순간에 언니가 나와 함께 있어주어서 너무나 고마웠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이 통할 때 그 벅차 오르는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함께여서 모든 일들이 더 감동적이었고, 아름다웠다.

4-2

그리고 나는 지금 또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한국에 돌아가서, 또다시 내 삶이 끝이 불확실한 시간의 연장선 상에 놓이면, 매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고 순간의 행복을 놓치는 사람으로 돌아갈까 봐 두렵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내가 어떨 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지 5개월 전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두근거리는 일인지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난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을 것이다. 가슴 뛰는 오늘을 살기 위해 주저하지 않고 도전할 것이다. 그런 삶을 한 번 살아보려고 한다.

5

그리고 지금 오늘로 내게,
양곤에서의 시간은 딱 30일이 남았다.

123일이 지날 동안
아직도 혼자서 쉐삐따에 갈 자신이 없는
나는 여전히 미얀마에 적응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난 오늘도
Y 가족들에게 새로운 표현을 배울 것이고,
언니랑 아직 못 가본 카페에 가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다음 주 널서리를 열심히 준비할 것이고,
Y 친구들이랑 여전히 내 입맛에는 안 맞는 미얀마 맥주를 마시며 별을 볼 것이다.

이곳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난 이 나라에 대해 배울 것이다.

이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fin.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한국에서 만나요.
따따.

PUP THE VOLUME

한국에서
만나요.

양곤의 POWER TIME